

#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	2
II. 경제동향 .....	3
III. 정치·사회동향 .....	11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	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sup>2</sup>	G D P	1,268 억 달러(2009년)
인구	29.17백만명(2009년)	1 인 당 GDP	4,347 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uevo Sol(NS)
대외정책	실리주의 경제외교	환율(달러당)	3.01(2009년 평균)

□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달리는 5,000m 이상의 안데스산맥이 국토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약3,000만명의 인구, 남미에서 3번째로 광활한 영토(한반도의 약6배), 천연가스, 금, 동, 아연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최근 수년간 대외경제여건 호조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가신인도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f
경제성장률	7.7	8.9	9.8	0.9	7.7
재정수지 / GDP	2.1	3.2	2.2	-2.1	-1.4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8	5.8	2.9	1.7

자료: EIU

#### □ 경제 성장세 회복

- 페루경제는 국제광물가격 호조지속에 따른 금 및 동의 수출증가, Camisea 천연가스전 본격개발,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06~08년 동안 7.7%~9.8%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위축되어 2009년에는 0.9%의 저성장세에 그침.
- 그러나 2009년 3/4분기 이후 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6.1%와 10.1%에 이르는 등 경기과열을 우려할 수준의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금, 동 등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년 경제성장률은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에도 5%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 물가는 안정세 유지

- 페루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금리인상 등을 통해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0% 기준으로 상하1%(1.0%~3.0%) 이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8%에 이르는 등 경기과열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5.8%에 이르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하락세를 전환되어 2009년에는 2.9%로 낮아졌음.
- 금년 들어서도 경기과열을 우려한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강화와 누에보 솔화의 강세 지속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 전환

- 페루는 2003년 5월 비금융공공분야(NFPS) 적자 한도를 GDP의 1%로 설정하고,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책임투명성법(Fis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Law)을 제정하고, 세수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상(18%→19%) 및 법인세율 인상(27%→30%)등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재정수지가 개선 추세를 보여 왔음.
- 페루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 조치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대로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보이던 재정수지가 2006년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7~08년에도 정부의 신중한 재정운영과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확대에 힘입어 흑자기조가 지속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한 재정지출 증

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인해 2009년에는 다시 적자(GDP의 -2.1%)로 전환되었고, 금년에도 소폭의 적자(GDP의 -1.4%)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광업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페루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15억 달러 규모의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이 페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o 광업계의 직접고용 인력은 67,000명, 간접고용 인원은 335,000명에 달하며 관련 업종 고용인구는 총 150만명으로 페루 총인구의 약5.4%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업이 페루 수출 및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제원자재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임.

#### □ 인프라 미비

- 페루는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총 131국 중 86위를 차지하였음. 동 보고서는 페루의 가장 큰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전력(128위), 도로(114위), 항만(127위) 등 인프라 부족을 제시하고 있음.
- o 전체 도로 78,554km 중 포장된 도로는 14.4%에 불과하며, 대중교통수단의 75% 이상이 20년 이상 낙후되어 있으며, 철도의 승객운송 기능은 주로 Puno, Cusco, Arequipa 등 관광지역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음.

## [성장잠재력]

### □ 남미의 자원부국

- 페루는 동(2위), 금(5위),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비수무트(3위), 인듐 등의 생산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남미의 자원부국임.
- o 특히, 세계 동 매장량의 15%를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국제 구리 가격 호조 및 광업부문에 대한 신규투자가 증가하면서 칠레에 이어 세계 2위의 동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음.
- 페루는 또한 남미 제7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으로서 까미세아 가스 전 개발로 일일 약 217.8백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카미세아 유전에서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천연가스가 생산됨에 따라 주 에너지원을 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 가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멕시코 등으로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카미세아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가스를 활용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함.

## [정책성과]

### □ 기존의 경제안정을 중시하는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지속 전망

- 가르시아 대통령은 취임이후 자유주의 경제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것 이라고 약속하였으며, 급진좌파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우고 차베스(Hugo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에보 모랄레스(Evo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음.

- 가르시아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확충과 거시경제안정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11년 까지 연평균 7%대의 성장을 이룩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1% 이내로 축소하여 국가채무를 GDP의 30%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외채축소를 위해 외화표시 정부채를 현지화 채무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함.

## □ FTA 협상 활발

- 2006년 6월 28일 페루 의회는 2004년 5월부터 거의 2년간의 협상 끝에 2006년 4월 12일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 총 120명 중 99명이 출석하여 찬성 79표, 반대 14표, 기권 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비준하였으며, 미국 의회도 2007년 11월 최종 비준함으로써 페루-미국 FTA는 본격 발효되었음.
- 미국은 페루의 주요 수출국가로서 페루 수출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페루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구리, 금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2011년까지 총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EU, 캐나다 및 싱가포르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시아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FTA도 체결할 예정임.
  - o 우리나라와 페루의 FTA는 금년 8월 타결되었으며, 금년 11월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의 한국 방문기간 중 정식 체결 예정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2,872	1,363	-4,723	247	-219
경상수지 / GDP	3.1	1.3	-3.7	0.2	-0.1
상 품 수 지	8,986	8,287	3,091	5,874	6,409
수 출	23,830	27,882	31,529	26,885	33,831
수 입	14,844	19,595	28,439	21,011	27,422
외 환 보 유 액	17,439	27,784	31,254	33,230	39,176
총 외 채 잔 액	28,491	28,884	28,555	31,095	33,726
총외채잔액 / GDP	30.8	26.9	22.4	24.5	21.6
D. S. R.	13.6	26.5	13.3	12.0	11.3

자료: IFS, EIU

#### □ 수출입 증가세로 전환

- 페루는 1차산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동, 금, 아연 등 광물자원 및 수산물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광물자원의 수출은 총수출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산물의 수출이 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동 및 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과 FTA 발효에 따라 커피, 감자 등의 농산물 및 면, 모 등의 섬유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 수년간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200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광업 및 가스전 개발 투자자들의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음. 2009년에는 수입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수출: 91억 달러(03년) → 315억달러(08년) → 269억 달러(09년)  
→ 338억 달러(10년)
- 수입: 82억 달러(03년) → 284억달러(08년) → 210억 달러(09년)  
→ 274억 달러(10년)

#### □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

- 2004~07년 동안 광물수출 호조 지속으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31억 달러로 축소되고, 다국적 광업회사들의 과실 송금 및 외채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81억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5년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됨.
- 2009년에는 상품수지가 59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다시 소규모 흑자(GDP의 0.2%인 2.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실송금 증가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99억 달러로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다시 소규모 적자(GDP의 0.1%인 3.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FDI 유입 지속 전망

- 까미세아 천연가스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FDI유입 실적은 26억 달러였으며, 2006년에도 브라질-페루 남미 횡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및 공항, 광산, 항만,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부문 양허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로 FDI 규모가 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2007년에도 FDI 유입액은 55억 달러로 2005년 대비 두 배 이상의 큰 증가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2007년11월)와 광업 호조 등으로 FDI 유입이 사상 최대인 69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FDI 유입액이 4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과 비슷한 6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 외채상황 호전

- 2009년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GDP의 24.5%에 해당하는 311억 달러에 불과함. 최근 수년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국의 외채상환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D.S.R.은 2007년에 26.5%로 높아졌는데, 이는 파리클럽 채무의 조기상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고, 2008~09년 D.S.R.은 각각 13.3%와 12.0%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 수출 증가와 FDI 유입 증대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2월 현재 332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페루는 외환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외환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2006년 7월 28일 가르시아 정부 출범

- 2006년 6월 4일 실시된 대선에서 아프라당(APRA)의 중도좌파 알란 가르시아 후보가 급진좌파 민족주의자인 페루 동맹당(UPP)의 오얀따 우말라(OllantaHumal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됨.
-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1985~1990년 까지 집권한 바 있으나, 집권 당시 은행 국유화, 외채상환 거부(1986년9월) 등 경제정책 실패로 식량난이 발생하고 게릴라 단체가 준동하는 등 경제를 파탄시킨 실패한 대통령(1992~2001년 국외 망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음.
- 또한 그가 중남미 정통 좌파 정당인 아프라당(APRA) 출신으로 좌파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페루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스페인 상업은행인 BBVA 은행의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톨레도 정부에서 경제부 차관을 지낸 강경한 보수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루이스 까란사(LuisCarranza)를 경제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함.
- 또한 급진좌파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우고 차베스(Hugo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집권 이후에도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수그러 듬.

-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확충과 거시경제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 □ 2011년 4월 총선 및 대선 실시 예정

- 2011년 4월 총선 및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헌법이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의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임.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케이코 소피아 후지모리 의원과 수도 리마 시장을 역임한 루이스 카스타네다 전시장이 각각 22%와 2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인 알레한드로 톨레도는 14%를 얻어 3위를 차지했음. 이밖에 국가연대당(PSN) 소속의 오얀타 우말라와 메르세데스 아르아오스 경제장관, 소설가 하이메 바일리,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경제장관이 1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음.
- 현재,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 내년 대선은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부패 스캔들로 현 정부의 지지도 하락

-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서민층에까지 미치지 않았고,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함.

- 특히, 2008년 10월에는 여당의 정치 거물인 레온 전 농업장관과 알베르토 콤페르 페루페트로 부사장이 노르웨이 기업 '디스커버 페트로리움'에 원유개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사실을 폭로하는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어 내각이 총사퇴하고,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함.
- o 취임 당시 50%를 넘어섰던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지지도는 대규모 정치 부패스캔들이 발생한 2008년 10월 이후 2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여 3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사회불안요소 상존

- 페루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절대빈곤층도 24%에 달하고 있음. 지니계수가 0.48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며, 빈곤으로부터 파생하는 치안불안 문제 등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디오 대부분이 안데스 고원지대와 동부 밀림지대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메스티조와 백인은 주로 해안 저지대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해안 저지대에 밀집하여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함.
- 교원노조, 의료분야 노조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과 광산지대를 중심으로 민영화 반대시위도 빈발하나, 게릴라 단체의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며, 내전이나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임.

### 3. 국제 관계

#### □ 미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

- 페루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마약밀매 근절을 위한 국경지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의 콜롬비아 게릴라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제외하고는 주변국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외무장관에 직업외교관 출신의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벨라운데를 임명하였고,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과 안데안공동체(CAN)를 중시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칠레와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국가신용등급 지속 상승

- 2005년 6월 OECD는 동국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파리클럽과의 채무관계 호전으로 외채부담이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등급 상향조정하였음.
- S&P도 2005년 7월에 동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조정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페루의 경제성장 호조 지속과 국가채무부담 감소 추세 및 정치적 안정을 반영해 종전 BB에서 투자적격등급 보다 1단계 낮은 BB+로 한단계 상향조정했음.

- Moody's도 2007년 7월 페루의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보유고 증가 및 대외채무 감축 정책 등으로 대외채무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대외부문 취약성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종전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음.

□2008년 이후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승

- 2008년4월 Fitch는 적극적 재정 및 외채관리능력 향상 및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공공부문의 경우 순채권국이 되었으며,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페루의 국가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함.
- OECD도 2008년 6월 국가위험도평가회의(CRE)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 및 무역 상대국 다변화 성공,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상향조정함.
- 2008년 7월에는 S&P가 재정수지 개선과 대외부문 변동성 감소로 경제 리스크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인 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환경이 건실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BBB-로 상향조정함.
- 2008년 8월 Moody's 또한 국내시장 조달자금으로 외채를 조기상환하면서 정부의 외화표시채무가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권 여·수신의 달러표시 비중도 최근 들어 감소세에 있어 페루의 외환관련 신인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Ba1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한 단계 추가 상향조정함.

- o OECD: 5등급(04.6) → 4등급(05.6) → 3등급(08.6) → 3등급(10.6)
- o Moody's: Ba3(99.7) → Ba2(07.7) → Ba1(08.8) → Baa3(09.12)
- o S&P: BB-(00.11) → BB(04.6) → BB+(06.11) → BBB-(08.7) →

BBB-, Positive (10.8)

- o Fitch: BB-(01.4) → BB(04.11) → BB+(06.8) → BBB-(08.4) → BBB-, Positive (10.6)

##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o US EXIM: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o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o 독일 Hermes: 단기 최고부보율 적용

## 3. 외채상환태도

###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 태도 양호

- 동국은 1986년 9월 국제 상업은행단과의 외채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리금 상환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기관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한 동안 신규차입이 동결되었음.
- 그러나 1990년 출범한 후지모리 정부가 IMF가 제시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외채상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996년 이후 신규차입이 재개되는 등 국제신인도가 회복되었음.

### □ 글로벌본드 발행 등을 통한 채무스왑 및 조기상환 실시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으로 2002년 2월에는 70년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또한, 국제금리 하락을 활용하여 12억 달러의 브래디 본드를 신규 글로벌 본드와 스왑하여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켰음.



- 한편 2005년 6월에도 동국은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80억 달러 중 2009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원금 20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였음. 동국은 이를 위해 7.5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한편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현지화로 4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였는 바, 이는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외채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뿐만아니라, 일부 외채는 현지화 표시 내국채로 전환됨에 따라 환리스크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5월에는 우리스 까란사 재무장관이 파리클럽 외채 57.5억 달러 중 2007~15년 동안 기일이 도래하는 외채 25억 달러의 조기상환계획을 발표하였고, 파리클럽회원국이 페루의 조기상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10월 1일자로 조기상환이 실시되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466,161	720,004	641,426	가전제품,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수 입	1,039,888	903,894	919,364	아연, 동, 커피, 수산물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9 월 누계, 총투자 기준) 41건, 761,566천달러

#### □ 우리나라가 무역적자 지속

- 우리나라의 對페루 수출은 2001년 188백만불에서 2009년에는 641백만불로 지속 증가해왔으나, 對페루 수입은 2001년 116백만불에서 2009년에는 919백만불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o 수출 : 720백만달러(2008년) -> 641백만달러(2009년)

o 수입 : 903백만달러(2008년) -> 919백만달러(2009년)

□ 교역구조는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페루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경유, 화물자동차, 휴대폰, 타이어, TV 등이며, 對페루 주요 수입품은 동광, 아연광, 연광 등 광물과 오징어, 커피 등 농수산물임.

□ 對페루 투자 지속 증가

-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페루 투자는 신규법인수 40건, 투자금액 7억 4,899만 달러임.

- 페루는 우리나라 3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12.9억 달러), 파나마(12.6억 달러), 멕시코(9.4억 달러)에 이어 4위의 투자대상국임.

## V. 종합 의견

□ 페루는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국제가격 상승, 까미세아 가스전 프로젝트 및 광물 개발 프로젝트 추진, 미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수지 개선 등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개방, 경제자유화,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S&P, Moody's, Fitch 등 민간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 인프라 부족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외채잔액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대외지급능력 및 국제 신인도 부문이 크게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과 동일한 B2 등급을 부여코자 함.

문의 : 조사역 박현희(☎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